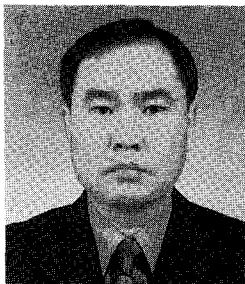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수출 증진에 노력...



이 한 면

(정우식품(주) 과장)

1. 산란노계육의 사용실태

우리나라에서 닭 사육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육계업과 채란양계업이 분리되어 오다가 1980년대 축협중앙회 발족과 동시에 지역축협과 함께 체계적으로 채란양계업과 육계양계업으로 나뉘어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더욱이 '80년대 초부터 놀라운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가정식탁은 물론 접대문화에 이르기까지 대변화를 가져왔다. 즉 채식위주에서 육식위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양계업도 소규모 가족중심 양계에서, 대규모 기업형 산란양계업으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김영삼 정부 시절 UR라운드 협상타결로 농축산업의 개방이 불가피해지자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농어촌에 장기간 걸쳐 무려 80여조원을 투자하면서 축산업도 그야말로 자동화시설을 갖춘 초대형 산란양계농장이 아닌 기업형 산란양계장으로 변화하면서 산란양계업은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국의 산란계 사육수가 '92년도 이후에는 시설확장으로 큰폭 증가되었고 산란이 끝난 노계에 대한 처리 문제가 산란양계업에 큰 숙제로 남게 되었다. 더욱이 제때에 대체입식을 하지 못 할시 산란율의 저하로 산란농장에 원가를 상승시켜 농장경영에 압박을 하는 주요 원인



이 되어 농장경여주로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구르는 지경에 처하자 일부 차량을 소유한 잡상인에게 노계를 처리하였으나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 당시 본사의 이한칠 대표는 1986년 9월 1일자로 취임한 이후 경영정상화에 대한 고심 끝에 임도계만으로는 많은 종업원과 기계시설, 설치비, 수선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주위에 도움을 받아 노계를 구입하여 자체 도계장을 이용한 후 사원들을 더욱 모집하여 부분육으로 해체, 냉동품으로 육가공 공장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으나, 노계육에 대한 인식 즉, 폐계라는 선입감으로 외면당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끈질긴 노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육가공제품의 소비가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육가공업체에서도 다각도로 맛과, 품질, 가격

에 대처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가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노계계정육에 대한 관심도는 놀랍게 변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노계계정육은 육가공 업체에서 원료육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따라서 노계육 이용 활성화로 인하여 산란 양계농장은 노계를 제때에 처리하므로 노계처리에 대한 숙제를 풀게 되었고 아울러 노계육 판매대금으로 일부나마 경비를 충당하게 된은 물론, 산란율을 지속시키는 계기가 되어 경영 상 숨통을 트이게 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도 노

표1. 2002년 정우식품에서 처리한 노계 계정육 물량
(단위 : M/T)

구 분	수 량	용 도
계정육	36,000	육가공원료
날 개	404	수 출
기 타	100	

계육의 활용상태를 노계전문 도계장을 통하여 알아본 바로는 육가공 원료외에 종계육의 특수부위는 음식점 등에서 숯불구이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노계날개와 종계육의 특수부위는 해외에 수출하므로 어려운 시대에 수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2. 향후 합리적인 노계 처리방안

국내 노계업계는 무척 취약한 시장이다. 노계산업 활성화 및 채란양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전한 노계유통시장 정착, 노계비축 시설 확보, 노계가공품 개발, 수출확대 등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고, 본사를 비롯한 노계처리장에서는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노계가 처리되지 못하여 계란생산이 많아지고 이로인한 난가하락에 따른 불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현재는 국내에서 닭고기 전용식당(닭갈비전문점)이나 치킨 점에서는 육계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노계육이 활용되어 옛 맛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생산자단체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꾸준한 투자와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가공제품의 투자와 개발의 중요성은 현재 단순히 육가공원료에만 의지할 경우 납품가격이 높으면 돈육이나 칠면조육으로 대체되어 계정육이 갈곳을 잃어버리는 위험성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노계육의 용도를 보면 계정육의 경우 육가공원료로 날개는 수출용으

로 이용되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을 통해 계정육의 경우 육가공 원료 뿐만 아니라 소스원료, 기호식품, 훈제가공품, 수출까지 다양화시킴으로써 노계사용을 늘릴 계획이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노계가격이 높게 올라 가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란계 농가에서는 계획적인 출하를 통해 채란산업의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농가에서 오히려 노계처리비용을 주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노계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에 가격의 진폭이 심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농가나 노계처리장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

정부에서도 노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꾸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노계비축시설 지원, 가공품 개발자금 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 다각도의 방안을 찾아 양계산업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농축산물의 해외 수출은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으나 다행이도 닭고기의 수출 그 중에서도 노계육의 수출은 증가일로에 있어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국제 닭고기 수출입 관련 뉴스를 보더라도 ND 등 주요 질병이 문제가 되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노계육 수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꾸준한 수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물론 업계, 농가들 모두 질병예방에 전력을 기울여 업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모색이 절실하다 하겠다. **[양계]**